

# 10년 후의 나를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또 다른 10년 후를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10년 후에 벤처인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들로 채워나갈 지를 상상하며 10년 후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컴퓨터 해외사업부  
한성진 주임**

나는 지금 한 카페에서 내 앞에 있는 지멘스 본사를 바라보며 브로이 맥주를 한잔 하고 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지났다. 비트컴퓨터에 입사해 지난 13년간 GE medical, Kodak 등 세계 유수의 의료정보 업체들과 미국시장에서 경쟁했던 기억들이 주마등 같이 흘러지나가며 가벼운 웃음이 나온다. 지금은 미국 의료정보 솔루션 시장 1위라는 성과이래 웃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금의 결과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미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신념 아래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된다. 지금 내 앞에는 유럽시장의 강자 지멘스라는 경쟁자가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10년 후에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유럽시장을 떠올리며 또 한번 미소를 머금고 싶다.

**코코넛 마케팅팀  
김정희 대리**

10년 전, 30대에 접어든 제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무수히도 많은 수식어들로 저를 표현하였습니다. 당시의 모 CF 카피를 인용하여 말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더랬습니다. “젊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위치에 서기를 희망하지요. 저 역시 미래 비전이 있는 건실한 기업에서 제 젊음을 투자하고, 제가 꿈꾸던 모든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살아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패기가 있었던 젊음이었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었던 지난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가 저를 말해 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꺾이고 좌절도 했지만 또 그 만큼 얻고 행복도 느꼈으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절제를 아는 세상사 지혜를 배웠으니 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을 듯 합니다. 이제 시작될 저의 40대를 테크노와 힙합처럼 강렬하고 신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인비닷컴 개발팀  
안시우**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알베르 슈바이처.

타인에게 소중한 것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사이트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구성하고, 구직자들을 상담하면서 커리어 관리 분야의 시장성과 가능성을 보고,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2년만 고생하면 어느 정도 케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잡았던 예산보다 지출은 두 배로 나가고 수입은 반으로 들어오면서,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 월말만 되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하면서, 애사심(愛社心)보다는 애직심(愛職心)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자신의 품질과 가치를 평가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 커리어 컨설팅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브랜드 관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업체로 도약하고자 하는 큰 꿈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떠올려서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춤추듯 즐기며,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코마스 기획마케팅팀  
이애영 대리**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삶이 있답니다. 6년 전 시작한 작은 일이 이제는 제법 규모가 커져서 요즘은 많은 시간을 사업구상이나 파트너 및 고객들을 만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 인생의 중심은 바로 가족이랍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제가 힘들 때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을 준 것도, 가슴 벅찬 기쁨을 함께 공유했던 것도 바로 제가 사랑하는 그들이니까요. 20대에는 젊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고 30대엔 마지막 남은 젊음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젊음은 나이에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용기 있고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40대여 영원하라~!

P.S. 현재 나이는 딱 30이랍니다. 참고로, 저 위에 나온 한 남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